



제목	У истоков турецкой литературы. Джелаль-Ед-Дин Руми. Вопросы мировоззрения
발행언어	러시아어
발행처	Мецниереба
발행일	1979.
저자	Джавелидзе Э.Д.
출판도시	Tbilisi
페이지수	302
ISBN 또는 ISSN	

내용 요약

『터키 문학의 기원. 제랄-에딘 루미. 세계관 문제』는 터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인이자 철학자, 그리고 시인인 루미에 대한 연구서적이다. 그는 터키 고전 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런 영향은 예술계뿐만 아니라 사상계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터키의 고전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쟁점들은 루미의 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해결된다. 또한 그는 터키 고전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다음의 두 문학사가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하렘 켈레비는 “위대한 시인들은 메블레나 교인이었거나 직접적으로 메블레나 교단과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루미와 메블레나 교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영향은 시뿐만 아니라 학문, 음악,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푸아드 코프류류(Mehmet Fuat Köprülü)는 “루미 작품에 대한 근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없이는 터키 문학작품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루미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루미는 술탄 벨레드부터 나짐 히크메트까지 터키의 대부분의 시인에게 영감을 주었다. 비록 루미의 작품들은 페르시아어로 쓰였지만 그 당시에는 터키 지식인들 사이에서 페르시아어가 자유로이 통용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이 터키 내에서도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은 수피즘에서 논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터키 종교, 정치, 철학, 문학 세계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책의 1장은 루미 시대의 상황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사상의 특이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2장은 절대적 진리, 우주론, 시간과 공간, 일시성, 가변성, 죽음, “저”세상, 의지와 신의 술책, 메블레나 비전, 시적 언어와 상징, 세마와 음악, 영혼과 육체, 인간, 공허, 학문과 철학의 본질, 신과의 일체, 내가 바로 진리 등의 루미의 세계관을 다루고 있다.